

“우리의 소원은 자주독립” 외침에 객석 ‘울컥~’

‘문화대국 프랑스’ 그 배경은

전남대박물관 내달 12일부터 ‘문화강좌’

창무극 ‘백범 김구’ 서울공연 리뷰

지난 29일, 서울시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약당 건물 외관을 장식하고 있는 건 태극기 앞에 선 백범(白凡) 김구 선생의 모습이었다. 8월29일은 백범 김구 탄신 136주년인 되는 뜻깊은 날. 이날을 기념해 창무극 ‘백범 김구’의 공연 소식을 알리는 거대한 플래카드가 내 걸렸다.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이사장 송순섭)와 (사)남도문화예술진흥회가 국가보훈처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창무극 ‘백범 김구’ 서울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1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젊은 층에 어울리기 어려운 국악 공연인데 의외로 젊은 관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으며 유관순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또 일부 관객들은 계단에 앉아 관람하기도 했다.

박승희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서곡이 연주된 후 막이 올라가자 김구 선생의 육성이 흘러 나왔다. 지지직 거리는 잡음이 심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며,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관객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작품은 2막으로 구성됐다. 1막에서는 김구로 이름을 바꾸기 전, 소년 장수 ‘김창수’의 이야기가 우리 전통 소리와 춤을 바탕으로 전개됐다. 2부는 상해로 들어가 임시정부 활동에 일생을 바치고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펼쳐졌다.

창악부, 무용부, 관현악부 등 90여명에 이르는 도립국악단 단원들과 율희철씨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연극배우들, 청주시립무용단 남자 무용수 등 100여명에 이르는 출연진은 작품 속에 잘 녹아 들었다.

주역배우들의 연기도 돋보였다. 김구 역을 맡은 박춘평씨는 임방축국악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성에 걸맞게 김구의 삶을 특유의 강인한 목소리로 표현해내 박수를 받았다.

특히 백범의 어머니역을 맡은 김향순씨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백범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는 전남도립국악단원들과 함께 2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서 창무극 ‘백범 김구’를 공연했다.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 제공>

전체 2막 100여명 판소리·춤으로 풀어내

주역들 힘있는 소리·수목화 화면 인상적

9월 5일 오후 3시 빛고을문화관 무료공연

앞서 조선의 아들을 이야기하며 아들을 격려하고, 죽을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심금을 울리는 ‘소리’로 표현해낼 때마다 객석에서는 추임새가 흘러나왔다.

그밖에 2막이 시작되면서 부르는 합창곡과 김구와 아내가 부르는 사랑가, 김구의 어머니와 아내가 부르는 2중창 등 음악과 수목화로 표현해낸 배경 화면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마지막 9장 ‘끝나지 않은 길’에서 김구

가 암살 당한 후 전 출연진이 선생의 뜻을 이어 받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소원은 자주 독립’이라고 외치는 부분에서는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졌고, 커튼콜 때는 일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제작비 등의 여건 탓에 무대 세트가 너무 단조로워 극적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점과 2막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내용들이 많이 부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공연 후 로비에서 만난 김은남(52·서울시 불광동)씨는 “유명한 위인의 삶을 다룬 작품이라 너무 무겁고 진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편하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며 “특히 판소리 공연으로 접해 더욱 의미있고 오늘처럼 박수를 많이 쳐본 공연도 없다”고 말했다.

김양식(81)씨는 “국악을 좋아해서 국악 공연을 자주 보는데 이번 작품은 규모도 있고, 사위어가는 애국심에 불을 당기는 작품이어서 감명 깊었다”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여러차례 공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광주빛고을문화관에서 공연되며 13일에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오후 6시)에서도 관객들을 만난다. 전석 초대. 문의 062-525-66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2012 2학기 문화강좌’를 다음달 12일부터 11월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학기 문화강좌는 ‘프랑스 문화의 고갱이’를 주제로 프랑스가 문화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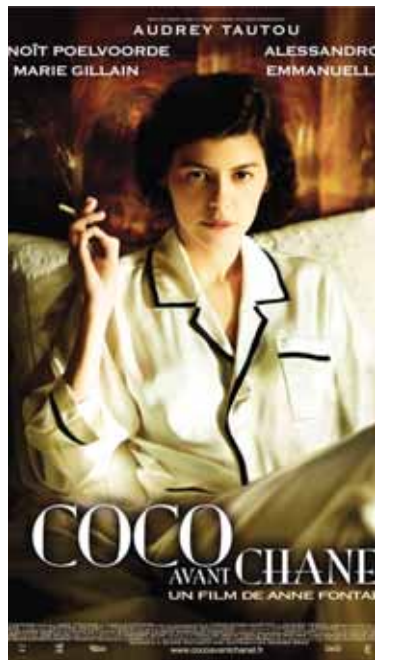
프랑스 미술, 문학, 영화, 음악, 교육, 음식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과 영화·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는 박만우 백남준 미술관장이 ‘프랑스 현대미술과 전시문화’(9월12일)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세화 작가 겸 진보신당 대표가 ‘프랑스의 공교육’(9월19일)을, 박기용 앙상블 오프스 상임지휘자가 빠리 누벨 제네라시옹 앙상블 음악감독이 ‘프랑스 음악-클래식과 샹송’(11월21일)에 대해 소개한다.

또 ‘클래식과 모던의 대명사, 샤넬’(10월10일), ‘프랑스의 지성인들’(10월17일), ‘와인의 나라, 프랑스 음식’



홍세화



‘코코샤넬’

(11월28일) 등이 준비됐다.

30년대 프랑스 대표 영화인 ‘망향’(11월14일)을 비롯해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일대기를 다룬 ‘코코샤넬’(10월10일), ‘사형대의 엘리베이터’(11월21일) 등 프랑스 대표 영화를 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수강료는 일반인 9만원, 전대 교직원 및 학생은 7만원. 문의 062-530-35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베토벤 선율은 피아노를 타고

김민희 독주회 내달 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김민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9월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화여대 음대를 졸업한 후 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 연주와 반주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보스턴 음대 연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연주에서는 바흐의 ‘파르티타 제5번 G장조’, 바르톡의 ‘소나타 Sz. 80’,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김씨는 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 피아노 쿼터 멤버로 연주활동을 하고 피아노 및 합창단 반주자를 역임했다. 귀국해 주자와 지도자 등 폭넓은 음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로고스 유스 챔버 오케스트라 4번째 연주회

광주신세계갤러리, 미술제 작품 공모

내달 3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로고스 유스 챔버 오케스트라 4번째 정기 연주회가 9월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미래 음악의 주역을 꿈꾸는 지역 음대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고스 유스 챔버 오케스트라는 (사)문화예술 진흥회를 주축으로 2009년 10월 창단되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이창훈 단장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날 연주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플루티스트 박지혜(목포대·광주예고 출강)씨가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트럼펫 연주자 이유신(광주대·광주교대 출강)씨가 협연한다. 마지막 곡은 차이코프스키 ‘세레나데’다. 문의 010-3605-4700.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지역 젊은 작가 육성을 내걸고 오는 제 14회 신세계미술제(9월 17일~10월 3일)의 작품을 공모한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서 활동하거나, 출신 작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신진작가상’ 부분의 경우 만 32세 이하 미술대학 졸업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작품은 자유롭게 하되 작품의 이미지와 설명, 수상작가 선정 시 전시하게 될 초대전 내용이 담긴 전시기획안을 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gallery.shinsegae.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상금 1000만원), 우수상 1명, 신진작가상 1명(이상 200만원) 등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개인 초대전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신세계미술제는 지난 1995년 시작됐으며 손봉채(1회), 이이남(8회) 작가 등이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1630. /김지을기자 dok2000@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2011 DAENEUNG's Best Seller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포켓 사이즈 MP3 무로다운 효율적 학습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강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강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한자능력검정시험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술문제의 상황,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영어백과

대신·위사·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술문제 포시

알짜배기 고사영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